

# 〈 수 능 기 출 의 궤 적 〉

수능 언어영역 문학(시, 소설, 극문학)+쓰기 모음  
2002학년도 수능~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edited by 『Joshua』

무단 편집을 금합니다.

## 차례 - 2002학년도 수능 이후 언어영역 문학 부분 작품 출제 목록

※ 밑줄이 쳐져 있는 해는 ‘현대시+고전시가 복합’ or ‘고전시가+수필/극문학 복합’ 을 의미함.

※ 7차 교육과정(05년 12월 예비평가) 이후 고전시가와 수필은 절대 단독으로 나오지 않음. ‘고전시가+현대시가 복합’ 으로 출제될 경우 ‘극문학’ 이 출제되며, ‘현대시’ 가 3개 묶여서 나오면 ‘고전시가+수필 복합’ 의 형태로 출제되는 형식.

### <시 - 현대시>

- 02년 수능: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추억에서(박재삼), 그리움(이용악)
- 03년 수능: 나룻배와 행인(한용운), 내 마음을 아실 이(김영랑),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
- 04년 수능: 고향(백석), 내가 만난 이중섭(김춘수),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서정주)
- 05년 12월 예비: 떠나가는 배(박용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선상탄(박인로)
- 05년 6월: 어부단가(이현보), 독을 차고(김영랑), 가정(박목월)
- 05년 9월: 마음의 태양(조지훈), 설일(김남조), 때(김광규)
- 05년 수능: 낡은 집(이용악), 은행나무(곽재구)
- 06년 6월: 바다와 나비(김기림), 복어(최승호), 고향 앞에서(오장환)
- 06년 9월: 사미인곡(정철), 수정가(박재삼), 너를 기다리는 동안(황지우)
- 06년 수능: 인동차(정지용), 청산도(박두진), 조그만 사랑 노래(황동규)
- 07년 6월: 고향길(신경림), 사향(김상옥), 추억에서(박재삼)
- 07년 9월: 추천사(서정주), 새(김지하), 만흥(윤선도)
- 07년 수능: 교목(이육사), 들길에 서서(신석정), 고고(김중길)
- 08년 6월: 나의 집(김소월), 길(윤동주), 제망매가(월명사)
- 08년 9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이용악), 월흔(박용래)
- 08년 수능: 와사등(김광규), 사령(김수영), 한겨울팔곡(권호문)
- 09년 6월: 여승(백석), 못 위의 잠(나희덕), 결빙의 아버지(이수익)
- 09년 9월: 꽃밭의 독백-사소단장(서정주),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만언사(안조원)
- 09년 수능: 님의 침묵(한용운), 나뭇잎 하나(김광규), 춘면곡(작자 미상)
- 10년 6월: 발열(정지용), 거문고(김영랑), 대설주의보(최승호)
- 10년 9월: 소년에게(이육사),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어로(황지우), 어부단가(이현보)
- 10년 수능: 승무(조지훈), 지리산 뽕꼭새(송수권), 면앙정가(송순)

### <시 - 고전시가>

- 02년 수능: 강촌(두보), 장진주사(정철), 상춘곡(정극인)
- 03년 수능: 면앙정가(송순), 농가(위백규)
- 04년 수능: 강설(유충원), 고산구곡가(이이), 유산가
- 05년 9월: 간접출제-화단(이태준) 中 성산별곡(정철)
- 05년 수능: 몇 설(조지훈), 도산십이곡(이황)
- 06년 6월: 다정가(이조년), 귀뚜리 저 귀뚜리(작자 미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윤오영)
- 06년 수능: 야청도의성(양태사), 속미인곡(정철), 조춘점묘(이상)
- 07년 6월: 매화사(안민영), 송순(면앙정가), 흥덕보 묘지명(박지원)
- 07년 수능: 이학우 흠뻏릴 계(계량), 만분가(조위), 질화로(양주동)
- 08년 9월: 상춘곡(정극인), 어옹(설장수), 동원화수기(남공철)
- 09년 6월: 고서(정약용), 누항사(박인로), 어떤 사람에게(이학규)
- 10년 6월: 관동록(홍인우), 관동별곡(정철), 금강 일만 이천 봉이(안민영)

### <소설 - 현대소설>

- 02년 수능: 화랑의 후예(김동리)

03년 수능: 관촌수필(이문구)  
 04년 수능: 중국인 거리(오정희)  
 05년 12월 예비: 강(서정인)/ 6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9월: 엄마의 말뚝 2(박완서)/ 수능: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06년 6월: 병신과 머저리(이청준)/ 9월: 만세전(염상섭)/ 수능: 광장(최인훈)  
 07년 6월: 금시조(이문열)/ 9월: 복덕방(이태준)/ 수능: 만무방(김유정)  
 08년 6월: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9월: 날개(이상)/ 수능: 흐르는 복(최일남)  
 09년 6월: 신열(현길연)/ 9월: 모반(오상원)/ 수능: 역사(김승옥)  
 10년 6월: 외딴 방(신경림)/ 9월: 잔인한 도시(이청준)/ 수능: 관촌수필(이문구)

**<소설 - 고전소설>**

02년 수능: 토벌가(신재효)  
 03년 수능: 창선감의록(조성기)  
 04년 수능: 심생전(이육)  
 05년 12월 예비: 운영전(작자 미상)/ 6월: 심청전(경판본)/ 9월: 민옹전(박지원)/ 수능: 최고운전(작자 미상)  
 06년 6월: 서동지전(작자 미상)/ 9월: 사씨남정기(김만중)/ 수능: 유충렬전(작자 미상)  
 07년 6월: 구운몽(김만중)/ 9월: 속향전(작자 미상)/ 수능: 적벽가(작자 미상)  
 08년 6월: 임진록(작자 미상)/ 9월: 전우치전(작자 미상)/ 수능: 사씨남정기(김만중)  
 09년 6월: 조웅전(작자 미상)/ 9월: 박홍보전(작자 미상)/ 수능: 박씨전(작자 미상)  
 10년 6월: 수궁가(작자 미상)/ 9월: 옥루몽(남영로)/ 수능: 만복사저포기(김시습)

**<수필, 희곡>**

02년 수능: 오발탄(이범선 원작) - 희곡  
 03년 수능: 동동 낙랑동(최인훈) - 희곡  
 04년 수능: 계(김용준) - 수필  
 05년 12월 예비: 불모지(차범석) - 희곡  
 05년 6월: 매직펜과 붓(신영복), 폭포와 분수(이어령) - 수필  
 06년 9월: 원고지(이근삼) - 희곡  
 07년 9월: 토막(유치진) - 희곡  
 08년 6월: 한씨연대기(황석영 원작) - 희곡  
 08년 수능: 만선(천승세) - 희곡  
 09년 9월: 파수꾼(이강백) - 희곡  
 09년 수능: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홍파 각색) - 희곡  
 10년 9월: 동승(함세덕) - 희곡  
 10년 수능: 장마(윤삼옥 각색) - 희곡

본 문서의 독창적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편집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시 - 이론 정리]

[2002학년도 수능 13~17번]

(가)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 추억에서

박재삼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다) 그리움

이용악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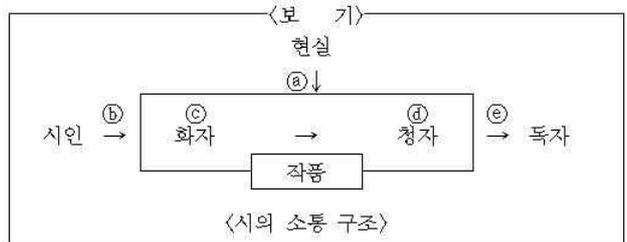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백무선 : 함경북도 백암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을 잇는 철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화자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 ⑤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14. 부제(副題)를 붙여 얻게 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가)를 <보기>의 각 요소에 관련지어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① ①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 현실성을 높여 준다.
- ② ② : 시인과 화자를 분리하여, 시 내용이 시인 자신

의 생각과 거리가 있음을 드러낸다.

- ③ ㉔ : 도시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④ ㉕ : ‘너’를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의 독백이라는 느낌을 준다.
- ⑤ ㉖ : 그 동안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15.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옆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① ‘어머니의 힘든 노동’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② 방 안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시상(詩想)을 집약하는 것도 좋겠군.
- ③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화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 ④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려 한 원시(原詩)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 써야겠어.
- ⑤ 어머니의 일을 채소 장사로 바꾸고, 그 일과 관련된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16.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 (다)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나), (다) 모두 어둡고 추위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나)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는 ‘웅기’에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④ (나)에 반복된 ‘울 엄마’는 화자가 유년기 체험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다)는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17. (가)의 ㉑~㉔ 중, (다)의 작은 마을과 그 이미지가 대응되는 시어는?

- ① ㉑ : 눈
- ② ㉒ : 메밀묵
- ③ ㉓ : 기계 굴러가는 소리
- ④ ㉔ : 새빨간 감
- ⑤ ㉕ : 울음

[2003학년도 수능 13~17번]

(가)  
나는 ㉑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열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  
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  
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게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자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㉒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A]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에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신념을 그리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14.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 보기 >

◦ 작은 배: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확과 재생.
- 물: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확과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에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 ① ㉠나룻배: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불: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물: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나무: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하늘: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15. (가) 시의 소통 구조와 표현에 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나룻배'에서 보듯이 이 시의 화자는 '나'야. 이럴 경우 '나'는 시인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 ②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청자도 비교적 명확해.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재 화자 앞에 청자가 없으니까 이 시는 독백이라고 봐야 할 거야.
- ③ 같은 구절을 시의 앞뒤에 배치하는 수미상응의 방법을 써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어.
- ④ 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
- ⑤ 3연은 '나'의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에게 무관심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끝내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지.

16. (나)의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이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련만  
불빛에 연기인 듯 희미한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라 내 혼자 마음은

- ① 구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 ②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 ③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 ④ 문법의 틀을 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 ⑤ 시적 진술을 좀 더 분명히 하여 의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17. (다)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번쩍이며 오는 아  
침부터,/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그대인가고, 그대  
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② 눈이 많이 와서/산뜻새가 별로 내려 맥이고/눈구덩  
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마을에는 그 무슨 반  
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백석,국수-

③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  
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  
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  
어진다.

- 정지용, 백록담 -

④ 물 먹는 소 목덜미에/할머니 손이 얹혀졌다./이 하  
루도/함께 지났다고,/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서로 적  
막하다고,

- 김종삼, 묵화(墨畵) -

⑤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흔들어 깨우면/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  
이 온다.

- 이성부, 봄 -

[2004학년도 수능 15~19번]

(가) 고향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어 누어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 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뜯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백석
--	----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띄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나)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가 온다고  
 바다보다도 진한 빛깔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길 위에  
 발자국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 뒤에 나는 또  
 남포동 어느 찻집에서  
 이중섭을 보았다.  
 바다가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  
 진한 어둠이 깔린 바다를  
 그는 한뼘 한뼘 지우고 있었다.  
 동경에서 아내를 오지 않는다고,

(다)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서정주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큰 먹오  
 덧빛 뒷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뒷마루는 외할머  
 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  
 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  
 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  
 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닳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뒷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  
 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

어 있는 이 툃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부재나 결핍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비판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는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16. (나)의 **이중섭**에게 (다)의 **거울**을 주었다고 가정할 때, 그 거울에 비칠 형상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아내, 이중섭
- ② 이중섭, 길
- ③ 아내, 동경
- ④ 아내, 바다
- ⑤ 나, 바다

17. (가)의 ㉠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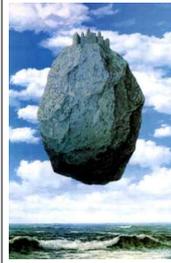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 비밀의 방에 이르러간다. 비밀의 방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다. 미궁을 통과하는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미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고 열리는 문이다. 테세우스는 미궁의 문을 찾아 실 끝을 미궁의 문설주에 묶어 놓은 뒤 자신의 예지와 본능으로 미로를 더듬어 비밀의 방에 이른다.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인 후 실을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온다. 이 '미궁의 신화'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테세우스
- ② 미노타우로스
- ③ 미궁의 문
- ④ 비밀의 방
- ⑤ 실

18.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 (나)의 ㉡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그림은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城)'입니다. 바다 위에 바위가 하나 떠 있습니다. 기이한 느낌이 들지요? 바위 꼭대기에는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한 달걀 같기도 하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고 비일상적인 사물들의 연계는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같은 발상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상상이 대상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림이야. ㉠과 같은 표현도 신비롭고 환상적이면서 '이중섭'의 그리움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군.
- ②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와 ㉡이 가리키는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이 구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
- ③ 인간과 격리된 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득한 바다 위의 성을 표현한 것 같아. ㉡ 또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 ④ 떠 있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해의 몫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돌린 것 아닐까. 마찬가지로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아.
- ⑤ 바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도 인간의 시선으로 포착한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데서 나온 시적 발상이라고 생각해.

1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툃마루'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② '집 뒤안'과 '장독대'는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때겨울 툃마루'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라는 구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④ '먹오덧빛'은 '툃마루'와 '오디 열매'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 ⑤ '숨을 바로 합니다'는 치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05년 12월 예비평가(2003년 12월 시행) 15~20번]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A] { 아늑한 이 항구—ㄴ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뭇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B] {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에 지게 한

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하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있었으니  
 서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추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청년기 시인의 낭만적 열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A]와 [B]가 작품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A]는 화자가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B]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을 보여 준다.

- ② [A]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B]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③ [A]는 화자의 소중했던 과거를 함축하고, [B]는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
- ④ [A]는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고, [B]는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 ⑤ [A]는 화자의 감상성을 드러내고, [B]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다.

17.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

②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③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짝짝한 서울길 /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땀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 김지하, 서울길 -

④ 삽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컷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 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18. <보기>는 (나)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①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이 작품은 상황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 ② 이 작품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정작 시인은 현실을 풍자하려고 한 게 아닐까?
- ③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 ④ 영화 관람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 ⑤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1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시구를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전체 시상의 흐름에 맞게 구성한다.
- 화자의 신분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
- 가급적 현대어로 쓰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① 적의 배에 달려 들어 선봉을 무찌르던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 ②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 ③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바다 물결 없는 평안함을 다시 보려 하노라.
- ④ 이 강산 부평 같은 어부의 삶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런고.
- ⑤ 바람 쫓은 구름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20.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점]

- ① ㉠은 떠나는 자신을 받아 줄 알맞은 조건을 의미한다.
- ② ㉡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⑤ ㉤는 시의 주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2005년 6월 평가원(2004년 6월 시행) 38~44번]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야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만경파(萬頃波): 넓은 바다 물결.  
\*\* 홍진(紅塵):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濟世賢):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  
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毒)을 차고 -

(다) 지상(地上)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의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文數)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六文三)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壁)을 싸울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十九文半).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家庭) -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 ① 그리움의 정서가 들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
- ③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대상에 대한 비판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3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②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다.

⑤ 마지막 구의 '제세현(濟世賢)'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0. (가)와 <보기>의 작가가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와 저물어 간다 연식(宴息)\*이 마땅토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興)치며 걸  
 어가서  
 지국총(至躬叢) 지국총(至躬叢) 어사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峰)에 넘도록 송창(松窓)을 비  
 켜 있자.  
 \* 연식(宴息): 편안하게 쉬.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① 윤선도: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시를 보면 푸른색, 흰색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 ② 이현보: 윤 선생님의 시에도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분명하던데, 제가 잘못 읽었나요?
- ③ 윤선도: 저는 이 선생님처럼 어부를 등장시키고,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을 나누어 보려 했지요.
- ④ 이현보: 윤 선생님은 흥(興)이라는 정서를 끌어냈는데, 저는 아직도 무심(無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⑤ 윤선도: 이 선생님의 시에 나타나는 '없으니', '있었거니', '더욱', '없으랴' 등의 시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군요.

41. (나)와 (다)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나)와 (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각각 '독'과 '신발'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에 비해 내면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 있다.
- ④ (다)는 (나)에 비해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⑤ (나)는 대화를 인용하고 있고, (다)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2. <보기>를 참조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랑의 시심(詩心)은 아름다운 남도(南道)의 자연과

소박하고 따스한 인정 속에서 싹튼 것이다. 세속의 명리(名利)를 탐하여 몸을 더럽히기보다는 고향 집 뜰에 곱게 피는 모란을 어루만지면서 시심을 가꾸는 것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는 훨씬 멋진 길이었다.

- ① '내 마음을 노리매'라는 시어에서 작가의 고통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 ② 마음 속에 '독'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③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 집을 떠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④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을 것이다.
- ⑤ 작가가 고향 집에서 시심을 가꾸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43.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시적 화자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막내동이의 신발과 대비하여 가장의 무거운 책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의 슬픔이 나타나고 있다.
- ④ ㉣: 어미처럼 보살펴 주어야 할 어리고 귀여운 자식들을 비유한다.
- ⑤ ㉤: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등장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책임감을 부각하고 있다.

44. (나)의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에 나타난 시적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어데로 가야 하나/ 어데로 날아가야 하나/ 피흘리며 찾아온 땅/ 꽃도 없다/ 이슬도 없다/ 녹슨 철조망가에/ 나비는/ 바람에 날린다

- 박봉우, 휴전선의 나비 -

- ② 올해도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작년 이맘때 오른/ 산마루 옛 성(城)터 바위 모서리,/ 작년처럼 단풍은 붉고,// 작년처럼/ 가을 들판은 저물어간다.

- 김종길, 단풍 -

- ③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알 것이다/ 지는 해의 힘없는 햇빛 한 가닥에도/ 날카로운 풀잎이 땅에 처지는 것을 // 그 살에 묻히는 소리 없는 괴로움을/ 제 입술로 핏아주는 가녀린 풀잎

- 이성복, 오래 고통받는 사람 -

④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툇밭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 광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

⑤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겨울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리

- 정호승, 겨울강에서 -

[2005년 9월 평가원(2004년 9월 시행) 20~24번]

(가)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A]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

(다)

남녘 들판에 곡식이 ㉥뜨겁게 익고

장대 같은 빗줄기 오랫동안 쏟아진 다음

남지나해의 회오리바람 세차게 불어와

여름내 흘린 땀과 곳곳에 쌓인 먼지

말끔히 씻어갈 때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대추나무 우듬지\*\*에 한두 개

누르스름한 이파리 생겨날 때

광복절이 어느새 지나가고

며칠 안 남은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아쉬워할 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의 귀뚜라미 울음 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지 말자

아직도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둘 때

- 김광규, 때 -

\* 이적진: '이제까지는'의 방언.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자연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④ 이상과 현실을 대비하여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 ⑤ 자연과 거리를 뒀으로써 존재의 고독감을 강조하고 있다.

21.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는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다)는 시간의 역전(逆轉)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22. ㉠~㉥ 중에서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가)의 원광(圓光) 과 (다)의 무엇 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상의 극적 전환을 유도하는 매개물이다.
- ② 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 ④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해 준다.
- ⑤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적 긴장을 높여 준다.

24.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A]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3점]

-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리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듯한 털옷 되지 않으리
- ②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여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 ③ 이제 나는 너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여리  
내 마음의 곁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곁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 ④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설사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 ⑤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 하리라

[2005학년도 수능 15~19번]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둥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 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름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A]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반질고리'의 방언.  
\*\* 글거리: '그루터기'의 방언.

(나)

- ㉠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짓  
네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 ㉡ 누군가 깊게 사랑해 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서를 쓰기도 한다  
신비로와라 앞서가마다 적힌
- ㉢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 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의 물이  
들게 한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곡예를 하는 도롱이  
집\* 몇 개
- ㉣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뒤통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의  
노오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 ㉤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  
힐 것이다.

- 곽재구, 「은행나무」 -

\* 도롱이집: 도롱이나방의 집.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 ③ (가)는 (나)에 비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 사건의 전개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16. ㉠~㉣ 중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1점]

<보 기>

(가)의 '찾길'은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신작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찾길'은 이 시의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을 띠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발표 연도: 1938년  
· 작가 소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 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② '당나귀 물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18. [A]를 <보기>와 같이 희곡으로 구성할 때, 시의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대사는?

<보 기>

털보네 안방  
(갓 출산한 털보 처와 산파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파:아들이야. 애아버지를 썩 빼뺏았구먼.  
①털보 처: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어쩌다가 이런 집 안에 태어났는지…….

마을 빨래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머니 1: 털보네, 아들 낳았다면서요?  
②아주머니2: 그러게요. 자식새끼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  
③아주머니 3: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쫓쫓.

털보네 안방  
(등불이 가물거리는 어두운 방. 털보와 털보 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④털보 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없는 살림에 입만 자꾸 늘고……. 어떡해요, 앞으로…….  
⑤털보: 걱정 말구려. 저 먹을 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잖소. (아기를 들여다보며) 고놈, 참 잘도 자네. 이놈이 다 자랐을 때면 세상도 달라져 있겠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9.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나는 눈썹’,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은 은행나무 잎을 비유한 것이다.  
② ‘노래할 수 없다’,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③ ‘자기 뒤편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는 상황에 대한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④ ‘노오란 우산깃’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⑤ ‘불타는 형상’은 ‘희망’을 감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2006년 6월 평가원(2005년 6월 시행) 15~19번]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 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허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뽀뽀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에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  
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6.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걸 거야.
-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을 거야.
-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상되었을 거야.
-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나)의 주제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다)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 ③ (다)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 ⑤ (다)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2006년 9월 평가원(2005년 9월 시행) 15~21번]

(가)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득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좇아 ㉡베개 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건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득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  
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  
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  
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  
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  
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  
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  
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  
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A]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

[B] 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16. <보기>는 (가)의 작가가 쓴 한시(漢詩)이다.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궁궐 담 남쪽 언덕에 나무는 푸르고 푸르리니  
돌아가는 꿈이 멀리멀리 옥당(玉堂)에 오른다  
두견새 슬피 울자 산에 대나무가 찢어지니  
고신(孤臣)의 머리털이 이때에 더욱 세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기대감의 이유	현실의 확인	현실 극복을 위한 행위
봄	동풍	(ㄱ)	저 매화를 꺾어 임 계신 데 보내 고자 함
여름	새 잎	나위 적막하고 수 막이 비어 있음	(ㄴ)

- | (ㄱ)         | (ㄴ)        |
|-------------|------------|
| ① 녹음이 깔림    | 제도를 잘 갖춤   |
| ② 암향이 일어남   | 백옥함에 담아 둠  |
| ③ 산과 구름이 험함 | 오색실을 풀어 냄  |
| ④ 적설을 헤쳐 냄  | 부용을 걷어 놓음  |
| ⑤ 가뭄 냉담함    | 임의 옷을 지어 냄 |

18. (나)에서 ㉠과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파악으로 옳바른 것은?

- | ㉠        | ㉡         |
|----------|-----------|
| ① 생산과 풍요 | 죽음과 상실    |
| ② 순수한 사랑 | 죽음과 상실    |
| ③ 인생무상   | 재회에 대한 믿음 |
| ④ 생산과 풍요 | 윤회에 대한 확신 |
| ⑤ 순수한 사랑 | 재회에 대한 믿음 |

19. <보기>를 (나)로 바꿔 썼다고 할 때,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갈까 부다, 갈까 부다, 임 따라서 갈까 부다.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갈까 부다.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수지니, 날지니, 해동청, 보라매 다 쉬어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 부다.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 동풍 제비 되어, 임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노니다가, 밤중이면 임을 만나 만단 정회를 허고 지고, 뉘 년의 꼬임 듣고 영영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 ①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다.
- ② 해학적 특성이 두드러졌다.
- ③ 음악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 ④ 우화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 ⑤ 관용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20. (나)와 (다)에 나타난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통해 어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21. (다)에서, [B]에 비추어 [A]를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세계로 몰입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② 낯선 세계를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③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군.
- ④ 대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는군.
- ⑤ 이상과 현실이 타협하는 계기가 되는군.

[2006학년도 수능 15~19번]

(가)  
노주인의 장벽(腸壁)에  
무시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흄냄새 훈훈히 김도 서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삶긴. 물에 삶아 우려냄.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잠착하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책력: 달력.

(나)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질푸른 산아. 숲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동 동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뺨꾸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불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불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 밭 푸른 언덕을, 총총 총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뺨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

(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과 놀아 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④ 경쾌하고 발랄한 어조를 통해 생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16. <보기>와 같이 학습 과제를 수행한 후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이 시의 창작 시기와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
  - 일제 말기인 1941년에 발행된 정지용의 두 번째 시집인 『백록담』에 실린 작품. 이 무렵 정지용은 서울에 살고 있었음.
2. 작품 제목의 의미를 알아본다.
  - 인동차(忍冬茶)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인동의 줄기와 잎사귀를 말려 달여 먹는 차. 인동은 인동과의 반(半) 상록 덩굴성 식물. 인동에는 '겨울을 창고 견딘다'는 뜻이 있음.
3. 이해하기 어려운 시어를 조사한다.
  - 장벽: 위장과 같은 내장의 벽.
  - 무시로: 아무 때나.
4. 이 시가 갖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 시상 전개:……
  - 이미지:……
  - 특이한 표현:……

- ① 창작 시기와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시에서는 겨울로 비유된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디려는 정신적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아.
- ② '장벽에/무시로 인동 삼킨 물이 나린다.'는 구절은 '차를 마신다'는 평범한 사실을 낯설게 바꾸어 표현한 것 같아.
- ③ '덩그럭 불이/도로 피어 붉고'라는 표현에서 실내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어.

- ④ '책력도 없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바쁘게 살아가는 도회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하얗다'를 '하이얗다'라고 표현한 것은 언어 규범에 어긋나지만, 정감의 깊이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17. (나)의 ㉠와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이다.
- ③ ㉠는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와 반목하는 존재이다.
- ④ ㉠는 현실의 모순을 심화하는 존재이고, ㉡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줄 존재이고, ㉡는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존재이다.

18. (나)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1점]

<보 기>

원시 시대의 인간은 주술적(呪術的) 언어를 통해 자연과 교감하였다. 박두진의 「청산도」에는 이러한 주술적 언어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자연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시어를 반복·변용하는 것,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①㉠      ②㉡      ③㉢      ④㉣      ⑤㉠

19. (다)의 특징을 빌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한다.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 ②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 ③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여운을 준다.
- ④ 조사와 구두점을 적절히 생략한다.
- ⑤ 계절감을 주는 소재를 활용한다.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15~19번]

(가)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윗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더미 수복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나)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송아지 물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멧남새도 캐어 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 도로 애젓하오  
- 김상옥, 「사향(思鄕)」 -

(다)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_\_\_\_\_ [A]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_\_\_\_\_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_\_\_\_\_ [B]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_\_\_\_\_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_\_\_\_\_  
울엄매야 울엄매,  
  
별발은 또 그리 멀리 \_\_\_\_\_ [C]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_\_\_\_\_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_\_\_\_\_  
  
진주 남강 맑다 해도 \_\_\_\_\_ [D]  
오명 가명 \_\_\_\_\_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_\_\_\_\_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_\_\_\_\_ [E]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_\_\_\_\_  
- 박재삼, 「추억에서」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는 고향에 정착할 수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② (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간직되어 있는 고향을 그리고 있다.  
③ (다)는 지명을 통해 고향에 대한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④ (나)와는 달리 (가)는 화자가 직접 고향을 찾아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⑤ (가)에 비해 (다)는 고향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16. ㉠~㉢에 내포된 화자의 정서가 가장 가까운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나)의 시상의 흐름에 맞추어 (다)를 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도록 연을 재배열한다.  
② 회상 형식이 드러나도록 처음과 끝에 화자의 현재 상황을 부여한다.  
③ 제재가 병렬적으로 구성되도록 특정한 시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④ 점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화자의 시선을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킨다.  
⑤ 각 연마다 선경 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드러나도록 전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보 기>

시조는 전통적으로 음악과 관련된 형식을 강조한다.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 현대 시조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여전히 중요시되어 음수 통제나 율격 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제약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시적 감수성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 현대 시조는 이러한 형식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미학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①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자 수를 제한하고 있군.  
② 이미지의 흐름에 따라 짜임새 있는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군.  
③ 어절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율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군.  
④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잘 살

리고 있군.

⑤ 정서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3장 구조를 지키고 있군.

19. <보기>는 (다)의 시인이 쓴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A]~[E]에서 <보기>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새벽 서릿길을 밟으며  
 어머니는 장사를 나가셨다가  
 촉촉한 밤이슬에 젖으며  
 우리들 머리맡으로 돌아오셨다.  
 - 박재삼, 「어떤 귀로」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007학년도 9월 평가원 28~34번]**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_\_\_\_\_ [A]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_\_\_\_\_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저 청청한 하늘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왜 날 울리나  
 ㉦날으는 새여

묶인 이 가슴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밀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어  
 피만이 흐르네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 [B]  
 함께 답새라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어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낮 속의 저 짧은  
 여위어가는 저 짧은 별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청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다)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얗\*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뉘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  
 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으라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들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으라  
- 윤선도, 「만흥(漫興)」 -

- \* 하암: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 부렬: 부러워할.
- \* 삼공: 삼 정승.
- \* 만승: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뎛더라: 약았더라.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9. [B]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B]의 화자가 [A]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 생명이 남아 있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 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
- 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 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0. <보기>를 참고할 때, ㉠~㉥ 중에서 (다)의 띠집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 [1점]

<보 기>

윤선도는 ‘띠집’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 끝내는 나로 하여금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1.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 ② ㉡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 구름일레라. 이 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3. (나)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화자와 ‘새’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하늘’, ‘구름’, ‘산’이 있는 원경(遠景)을 포착한다.
- ② 2연: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면을 어둡게 한다.
- ③ 3연: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4연: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

⑤ 5연: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새’와 ‘구름’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34. <보기>는 (다)의 창작 배경인 금쇄동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보기>와 관련지어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금쇄동 일대는 해남 윤씨 고택(古宅)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어 아무도 그 위치를 모르다가 최근에 서야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윤선도가 여기 은거하기 시작한 때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그는 가문의 일마져 아들에게 말하고 산속에서 십여 년간 혼자 지냈다. 살 집은 물론 정자와 정원까지 조성해 놓고 날마다 거닐며 놀았다고 한다.

- ① ‘산수간’은 관념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 공간일 수도 있겠군.
- ② ‘바위 끝 물가’는 정원의 바위와 연못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 ③ ‘그 남은 여남은 일’은 금쇄동에서 산수를 즐기는 일을 가리킬 수 있겠군.
- ④ ‘먼 뫼’는 윤선도가 유배 체험에서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었겠군.
- ⑤ ‘다툼 이 없는 강산’은 정쟁이 벌어지는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2007학년도 수능 28~32번]**

(가)  
푸른 하늘에 달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낮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喬木)」 -

(나)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다)  
북한산(北漢山)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白雲臺)나 인수봉(仁壽峰)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린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달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현재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해소된 조화로운 상태가 구현되어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0. <보기>는 (가)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과사전】

이육사: 시인.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항일 독립 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함.

· 작품 경향: 저항 의식, 실향 의식과 비애, 초인 의지와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정제된 형식미와 안정된 운율감을 보임.

· 「교목」: 1940년 『인문평론』 7월호에 발표.

【국어사전】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게 자라는 큰 나무.

【인터넷 자료】

· 『맹자』에 따르면,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道)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를 의미한다.

· 시인은 빈궁과 투옥과 유랑의 사십 평생에 거의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문학청년은 아니었으나 삼십 고개를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시에 의탁해 꿈도 그려 보고 불평도 터뜨렸던 것이다.(『육사 시집』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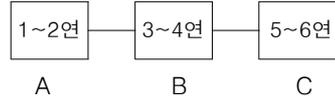
- ① 이 시의 제목은 나라를 위한 시인의 절개와 기상을 표상한 것이다.
- ② 이 시의 행 배열과 연 구성에서도 이육사 시의 형식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 ③ ‘낮은 거미집’은 시인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끝없는 꿈길’은 시인의 혁명적 열정과 의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바람’은 이국을 떠돌던 시인의 실향 의식과 저항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31. <보기>는 (나)와 (다)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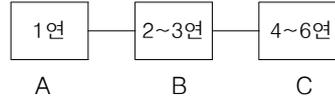
<보 기>

선생님: (나)와 (다)의 기본적인 짜임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나)



(다)



이제 두 시를 자세히 읽고, 시상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나)에서 A의 두 연은 ‘하늘’, B의 두 연은 ‘지구’, C의 두 연은 ‘푸른 별’이라는 시어를 통해 각각 결합하고 있어요.
- ② (나)는 A에서 ‘하늘로 팔을 드러내는’ 송고함을, B에서 ‘땅을 디디고 선’ 기쁨을 그리는데, 이것들이 C의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보는’ 거룩함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 ③ (나)는 (다)와 달리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더 응축되고 있어요. A에서 C로 갈수록 묘사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 ④ (다)의 A, B, C는 모두 ‘기다려야만 한다’는 말로 끝나고, ‘겨울’이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요. 반복이 이 시의 특징이에요.
- ⑤ (다)는 (나)와 달리 A는 한 연, B는 두 연, C는 세 연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B와 C는 A의 시상을 상세화하고 있어요.

32.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열은 화장’은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야. 산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 산의 모습을 그림에 비유한 거야. 대상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어.
- ③ ‘신록’, ‘단풍’, ‘안개’는 겨울이 아닐 때의 산의 모습을 나타내. 이들과의 대비를 통해 겨울 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어.
- ④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은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하지.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하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어.
- ⑤ ‘장밋빛 햇살’은 가볍게 눈 덮인 산봉우리의 속성을

‘변질’시키지. 그럼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한 산봉우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해.

[2008학년도 6월 평가원 13~18번]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슴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A]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김소월, 「나의 집」-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B]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다)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나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13~16번]**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롱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A]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자래운: 키운.
- \*아무을 만, 니코리스크: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설롱한: 춥고 차가운.

(나)  
침침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갹(坑)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속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러 풀러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읍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읍니다. [B]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흠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박용래, 「월훈(月暈)」-

\* 월훈:달무리.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4.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아라사: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젊어서 한창 땀/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딴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2008학년도 수능 13~18번]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김광균, 「와사등」-

(나)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김수영, 「사령(死靈)」-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쓰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㉞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쩌랴 이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 있다.  
 ③ (나), (다)에는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㉞, ㉟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㉞는 ㉟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② ㉟는 ㉞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㉞, ㉟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④ ㉞, ㉟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㉞, ㉟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 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

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옥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의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20~23번]**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덥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뽕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 「여승(女僧)」-

(나)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울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흠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나희덕, 「못 위의 잠」-

(다)  
 어머니,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구사하여 주제를 부각시킨다.
  - ②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③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정신이 엿보인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인과이다.
  - ⑤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1.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
  - ② ㉡: '여인'이 비극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택한 공간

- ③ ㉢: '사내'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
- ④ ㉣: '사내'가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공간
- ⑤ ㉤: '사내'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공간

23.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② '이승의 물로 화신'에는 삶에 대한 윤희론적 인식이 엿보인다.
  - ③ '어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얼어붙은 잔등'은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사건을 추측하게 한다.
  - ⑤ '얼음'은 일반적인 속성과는 달리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28~33번]

(가)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해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앞들 더러 썩고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가지들 휘고 꺾이는 비바람 속에서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  
사립을 젖혀 쓰고 망해를 조여 신고,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 홍일(紅日)을 띄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냇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 지취(志  
趣)를 취함이라.  
냇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냇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  
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을 실없이 드렸은들,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값으려니,  
값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  
**성세**(盛世)에 한민(閭民)\* 되어 너 좇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안조원, 「만연사」-

\*조대: 낚시를 하는 곳.  
\*은린옥척: 모양이 좋고 큰 물고기.  
\*한민: 한가로운 백성.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실상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정형적인 운율을 살려 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유장한 어조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9. (가)와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다)	시어의 의미와 기능
①	바닷가	조대	화자가 현재 머무는 장소
②	산새	은린옥척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
③	개벽	성세	화자의 처지가 변화하는 계기
④	물낫바닥	그림자	화자가 수행하는 자기 성찰의 매개물
⑤	아이	벗님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30. (나)와 (다)의 시상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나)와 (다) 모두 계절의 변화를 축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여러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가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④ (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 ⑤ (나)는 시적 화자의 심리 묘사를, (다)는 외부 대상 묘사를 위주로 시상을 전개한다.

3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시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32.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 ②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련을 극복한 대상을 격려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관조적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약자들에게 외부의 도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권고하고 있다.

33. <보기>의 ㉠~㉣ 중 (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옛사람들에게 ‘유배(流配)’는 무엇이었을까? 유배 가사를 통해 볼 때, 그것은 ㉠외롭고도 힘든 격리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귀양살이의 심경은 흔히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자기 부정이나 ㉣적대자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떠나온 곳에 마음을 두고 복귀를 욕망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면모가 엮히는 데에 유배 가사의 묘미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09학년도 수능 28~33번]**

(가)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 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헐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양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앓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님의 소식 행어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시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  
 나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낮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A]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2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30.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겠군.
31.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려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조나 가사에는, 임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

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곁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2010학년도 6월 평가원 13~16번]

(가)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를음 땅에 시며든 더운 김이 [A]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짝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B]  
 나는 종얼거리다, 나는 종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C]  
 아득한 하늘에는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  
 \*박나비: 흰제비불나방. 몸이 흰색이고 배에는 붉은 줄무늬가 있음.  
 \*주사(朱砂): 짙은 붉은색의 광물질로,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였음.

(나)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스무 번 바뀌었는디  
 내 기린(麒麟)\*은 영영 울지를 못한다  
 그 가슴을 통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饗宴)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의 외론 기린이야 하마 맞아졌을라

바깥은 거친 들 이리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은 맘들 곳 몸들 곳 없어지다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D]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이 밤도 내 기린은 맘 놓고 울들 못한다  
 -김영랑, 거문고 -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는 상상 속의 동물.

(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굽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끊이는 외딴집 굴뚝에 [E]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

13. (가)~(다)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는 동일한 시형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② (가), (다)는 명사로 끝맺은 시형을 반복하여 시적인 여운을 준다.
  - ③ (나), (다)는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④ (가), (나), (다)는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

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대상의 현재 상황을 부각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14. 다음은 (가)를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의 사항	·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른다. · 낭송, 영상 및 음향 효과는 시의 내용과 표현에 따른다.
[A]	ㄱ. 카메라 시선을 위쪽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림. ㄴ. 화면을 점차 뿌옇게 처리.
[B]	ㄷ.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영상과 가쁜 호흡의 음향 사용. ㄹ. 클로즈업 기법 활용. ㅁ. 5행과 10행은 영탄적 어조로 낭송.
[C]	ㅂ. 카메라 시선을 밤하늘 쪽으로 옮겨 원경으로 담아 냄. ㅅ. 빛이 흩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영상 효과를 줌.

- ① ㄱ, ㄴ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제시하고 작품 초반부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겠군.
- ② ㄷ은 안타까운 상황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애'가 겪는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 ③ ㄹ로 '애'의 모습을 담으면 감상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군.
- ④ ㅁ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과 내면 심리를 엿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어.
- ⑤ ㅂ, ㅅ은 의식이 혼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15. <보기>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나)와 (다)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 선생님: 순수 서정 시인 김영랑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이상 마음속 울림을 많은 가락으로 빚어낸 시를 쓸 수 없었어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거문고는 이런 현실을 우의적 표현으로 비판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1980년대 초반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대설주의보를 읽어보지요. 이 작품은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깊습니다.

- ① (나)와 (다) 모두 생각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에 창작되었어.
- ② (나)와 (다) 모두 고난 극복 의지와 미래에 대한 전

망이 나타나지 않아.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와 (다)의 '내리는'은 모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④ (나)의 '기린'은 '노인'에게,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존재야.

⑤ (나)의 '이리떼'와 '잔나비떼'처럼, (다)의 '솔개'는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소재야.

16. [D]와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D]와 [E]는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 ② [D]와 [E]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보여 준다.
- ③ [D]와 [E]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한다.
- ④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 ⑤ [D]에는 화자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 [E]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고립의 공간이 암시된다.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21~26번]**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내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진준가 : 진주인가.  
\*한가 :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 - 나무어로』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  
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驢) 난

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  
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청하 : 푸른 연잎.  
\*노적 화총 :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일반 청의미 :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제세현(濟世賢) :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② (가)의 ‘넋’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따랴'에서는 화자의 시련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앞'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과 ㉡를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대상	대상의 심상	화자의 태도
㉠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잊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그려낸다.
- ④ ㉡은 '잊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쉬어가는 이야기>

슬픔과 걱정이 인간을 떠나지 않는 이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이런 얘기가 있다.

슬픔과 불안의 신(神)이 흠으로 인간을 빚었다. 영혼의 신이 거기에 정신을 붙여넣고는 제 것이라고 했다. 흠의 신까지 나서 싸움이 나자 시간의 신이 판결했다. 인간에게 100년의 시간을 줄 테니 슬픔과 불안의 신이 100년 동안 주재하라 했다. 인간이 죽고 나면 정신은 영혼의 신이, 육신은 흠의 신이 되가져가라 했다. 인간은 한평생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 김상헌
- ③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夷齋)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재미(採薇)도 하는 것가.  
아무리 푸새엿것인들 그 뉘 땅에 났더니
- 성삼문
- ④ 이 몸이 쓸 데 없어 세상이 버리오매  
서호(西湖) 옛집을 다시 쓸고 누웠으니  
일신(一身)이 한가할지나 님 못 뵈어 하노라
- 이충
- ⑤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  
더니  
붉은 노을 가득하니 이 진정 거기рода.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
- 김득연

39.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송이는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이니, '하물며 무덤 위에 이슬 내릴 때야 뉘우친들 어찌하리.'로 바꾸자.

- ① 그렇게 바꾸면 무덤 주변의 스산한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 ②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닮은 소재로 표현해야 해.
- ③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던 동물을 통해 죽음의 쓸쓸함을 신비롭게 표현한 것을 놓치게 돼.
- ④ 원송이가 어떤 정서를 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 ⑤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어도 여러 글을 통해 원송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해.

40. (다)의 정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가집은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겠어.
- ② 피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
- ③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 ④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세속과 단절된 분위기를 그려야겠어.
- ⑤ 복사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야겠어.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예비와 갈매기를 통해 그윽한 자연경관을 그렸다.

- ② ㉡ :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강촌 생활의 모습을 나타냈다.
- ③ ㉢ :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해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 ④ ㉣ : 의미가 상반되는 구절을 배열해 무덤의 배경을 묘사했다.
- ⑤ ㉤ :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2003학년도 수능 28~31번]

(가)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으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냐  
오늘이 부족(不足)커니 내일이라 유여(有餘)하라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번로(煩勞)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다만 한 청려장(靑藜杖)이 다 무디어 가노매라  
술이 익었거니 벗이라 없을소냐  
불리며 타이며 켜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醉興)을 재촉커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우락 앉으락 굽으락 젓히락  
 읊으락 파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한가하다  
희황(羲皇)\*\*\*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괴로구나  
신선(神仙)이 어떻던지 이 몸이야 괴로구나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A] 악양루 상의 이태백(李太白)이 살아 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할소냐  
이 몸이 이렇 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송순, 면앙정가(倓仰亭歌)-

\*이아며: 흔들며. 또는 (계속해서) 이으며.  
\*\*노혜로: 마음대로.  
\*\*\*희황 :중국 전설상의 제왕인 복희씨(伏羲氏).

(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 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4장>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笛)\*이 함께 가자 재촉하  
는고

<6장>

-위백규, 농가(農歌)-

\*우배 초적: 소를 타고 가면서 부는 피리 소리.

28. (가)와 (나)의 밑줄 친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은?

- ① (가)의 '바람'과 (나)의 '청풍'은 모두 흥겹게 일  
을 한 다음에 느끼는 시원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② (가)의 '벗'은 일상적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나)  
의 '길 가는 손님'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있는 탈속적  
인물이다.
- ③ (가)의 '바람'과 '벗'은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 주고,  
(나)의 '청풍'과 '길 가는 손님'은 시적 배경을 부각시킨  
다.
- ④ (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  
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  
다.
- ⑤ (가)의 '바람'과 '파람'이 시상을 전환시키는 데 비하  
여, (나)의 '청풍'과 '파람'은 시상을 매듭짓는다.

29. (가)의 ㉠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원 생활에 겨움이 없어(㉠) 한가롭게 자연을 즐길  
틈이 없다(㉡).
- ② 풍경은 사시(四時)로 변하지만(㉠) 그 흥취를 느낄  
겨움이 없다(㉡).
- ③ 여기저기 불러 다니느라 겨움이 없어(㉠) 한가롭게  
살기 어렵다(㉡).
- ④ 한가로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즐거움  
을 찾기에 겨움이 없다(㉡).
- ⑤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즐기기에 겨움이 없다(㉡).

30. (가)의 [A]를 모방하여,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보 기>

- [A]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담을 것.
-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유지할  
것.

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활 트인 여름 들판에 서 보라.  
향긋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푸르른 들판이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가장 순수하고 총명한 것을 소유한 듯한  
느낌이다. 내 마음은 천지와 하나를 이루면서 한껏 부  
풀어 오르는 것이다. 이럴 때 나는 거칠 것 없는 자유  
와 행복감을 느끼고, 새삼 내 존재의 고귀함을 깨닫는  
다.

② 평소에 우리는 자연의 혜택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  
아간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여유가 생길 때면 문득 익  
숙한 배경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내 주위에 나무와 풀  
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고 컷가에 새 소리, 물 소  
리, 바람 소리가 맴도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있다고  
느낄 때, 나의 마음은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채비를 갖춘다.

③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면 늘 설렘이 앞선다.  
오늘 펼쳐질 일들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꿈꾸는 세상이 있고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내게는 아침 햇빛과 같이 빛나는 이상이 있어 견딜 만  
하다. 아침마다 나는 그런 행복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  
작한다.

④ 산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만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을 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간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  
는 길을 헤쳐 나갈 때의 기쁨! 나는 나만의 길을 사랑  
한다.

⑤ 세상은 철철이 옷을 갈아입는다. 잿빛 옷을 입었다  
가 푸른색 옷으로 바뀌 입고, 그 빛깔이 짙어지면서 어  
느새 울긋불긋한 옷으로 치장한다. 그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 세상의 빛깔을 바  
꾸어 놓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이 변하고 세  
상 속에 있는 나도 변한다. 이렇듯 산다는 것은 세상과  
함께 변화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31.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②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  
를 드러내고 있어.
- ③ 낮에서 저녁으로의 시간 경과와 함께 공간적 이동도  
나타나고 있어.
- ④ 시적 화자와 다른 인물들 사이의 유대감이 잘 드러  
나 있어.
- ⑤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  
어.

[2004학년도 수능 52~56번]

(가)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絶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 유종원, 강설(江雪) -

(나)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  
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더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  
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녹준: 술잔.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반송: 옆으로 퍼져 운치 있는 소나무.

(다)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  
(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을 어이 같고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  
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  
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  
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  
(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  
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遊山歌) -

5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비해, (다)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③ (다)와 달리,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⑤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5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 → 길 → 배 →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②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③ ‘날지 않고’와 ‘끊어졌네’는 시적 공간의 적막함을 강조한다.

④ ‘사람 흔적’은 ‘늙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⑤ ‘눈만 내리고’는 ‘늙은이’의 고독을 심화한다.

54.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하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② ‘녹준’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55. <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말’로 지어지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56. (다)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애의 정서에서 유희의 정서로 나아가고 있다.
- ② 후반부로 가면서 3·4조의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 ④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2005학년도 9월 평가원 43~47번]**

찰찰하신\* 노(老)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孫兒)\*\*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 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개인 화단 앞

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億兆蒼生)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랑게 뜬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꼼짝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 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걸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층 나무도 되고 오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흥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才功)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층 나무 오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一顧之惠)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화단(花壇) -

\* 찰찰하다: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 손아(孫兒): 손주를 일컫는 말.  
 \*\*\* 벌벌: 식물의 가지 따위가 옆으로 벌어진 모양.  
 \*\*\*\* 채반(-盤): 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를 엮어 만든 바구니.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태어를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③ 예스러운 어투가 사용되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④ 글쓴이의 체험을 상징화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⑤ 화초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 있다.

44.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삼아 - 뜻하던 일은 못 하고  
 ② 어정거릴 - 주의 깊게 살필  
 ③ 순조로 - 세차게  
 ④ 약이 오르고 - 은근히 화가 나고  
 ⑤ 안손님 - 여자 손님

45.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점]

- 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  
 ② 자연은 그것 자체로 최선이다.  
 ③ 자신을 망치는 것은 욕심이다.  
 ④ 인생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⑤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작품을 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46번, 47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돌렀으니,  
 천손운금(天孫雲錦)\*을 그 누가 베어 내어  
 잇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토 헌사할사.\*\*  
 산중에 책력(冊曆) 없어 사시(四時)를 모르더니  
 눈 아래 퍼진 경치 철철이 절로 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仙間)이라.  
 매화 창 아침 벌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옹(仙翁)의 하실 일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

울 밑 양지쪽에 외씨를 뿌려 두고  
 김 매거니 북 주거니 빗김에 손질하니,  
 청문(靑門) 고사\*\*\*를 이제도 있다 할까?  
 망혜(芒鞋)를 죄어 신고 죽장(竹杖)을 흘짚으니  
 도화(桃花) 핀 시냇길이 방초주(芳草洲)\*\*\*\*에 이  
 어 있다.  
 잘 닦은 명경(明鏡) 중에 그림 같은 돌 병풍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西河)로 함께 가니  
 도원(桃源)은 어디인가? 무릉(武陵)이 여기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 천손운금(天孫雲錦): 직녀가 짠 아름다운 비단으로, 은하수를 가리킴.  
 \*\* 헌사토 헌사할사: 매우 호화스럽고 아름답다는 뜻.  
 \*\*\* 청문(靑門) 고사: 중국 한나라 때 소평(邵平)이라는 사람이 창문 밖에 오이를 심었다는 고사.  
 \*\*\*\* 방초주(芳草洲): 꽃다운 풀이 우거진 물가의 작은 섬.

46.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으로 의미가 상통하는 것은?

- ① ㉠ 간호                    ② ㉡ 기적                    ③ ㉢ 비방  
 ④ ㉣ 재공                    ⑤ ㉤ 일고지혜

47. <보기>의 화자가 '선옹(仙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위 글의 '노인'에게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무상(無常)한 이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빛논을 다 무거 더더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② 봉(峰)마다 미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뽕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뭍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문돌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사.  
 ③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스럽다.  
 ④ 강산풍월(江山風月) 다 거놀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쌌다.  
 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내니, 창(窓) 밧기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궂득 냉담(冷淡) 한딤 암향(暗香)은 무스 일고. 황혼(黃昏)의 돌이 조차 벼마티 밧최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2005학년도 수능 37~43번]

(가)

하늘이 드높아 가니 벌써 가을인가 보다. 가을이 무엇인지 내 모르되 잎이 진 지 오래고 뜰 앞에 두어 송이 황국(黃菊)이 웃는지라 찾아오는 이마다 가을이라 이르니 나도 가을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 촛불을 끄고 창 앞에 턱을 괴었으나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다시 왜 사는가. 문득 한 줄기 바람에 마른 잎이 날아간다. 유위전변(有爲轉變)\*-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사나 보다.

우주의 원리 유일의 실재에다 '멋'이란 이름을 붙여 놓고 엿저녁 마시다 남은 머루술을 들이키고 나니 새삼스레 고개 고덕여지는 밤이다. 산골 물소리가 어떻게 높아 가는지 열어젖힌 창문에서는 달빛이 쏟아져 들고, 달빛 아래는 산란한 책과 술병과 방우자(放牛子)\*\*가 네 활개를 펴고 잠들어 있는 것이다.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대중이 없는데,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自適)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懷疑)하면 우주는 슬픈 속(俗)이었다. 나와 우주 사이에 주종의 관계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 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 슬픔이 되고 속(俗)이 되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아(雅)가 되는구나. 죽지 못해 살 바에는 없는 재미도 짐짓 있다 하라.

한 바리 밥과 산나물로 죽히 목숨을 이고 일상(一床)의 서(書)가 있으니 이로써 살아 있는 복이 족하지 않은가. 시를 읊을 동쪽 두던이 있고 발을 씻을 맑은 물이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 허물할 이가 누군가. 어찌 세상이 괴롭다 하느뇨. 이는 구태여 복을 찾으려 함이니, 슬프다, 복을 찾는 사람이여. 행복이란 찾을수록 멀어 가는 것이 아닌가.

[ ㉠ ]이 곧 행복이라, 다만 알려고 함으로써 멋을 삼노라.

- 조지훈, 「멋 설(說)」 -

\* 유위전변(有爲轉變): 세상사가 변하기 쉬워 덧없

음을 이르는 말.

\*\* 방우자(放牛子): 글쓴이의 아호(雅號).

(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A]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되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B]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  
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  
홀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 [C]  
(瀟灑)\*흔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  
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홀고.

청산(靑山)은 엿제 허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D]  
유수(流水)는 엿제 허여 주야(晝夜)에 굶지 아니  
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허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허거니 그 아니 쉬온가 [E]  
성인(聖人)도 못 다 허시니 그 아니 어려온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글쓴이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의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현상에 얽매이는 태도를 비판하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38. (나)의 화자가 (가)의 글에 <보기>와 같이 발문(跋文)을 써 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은? [3점]

<보 기>  
지훈의 글에 부쳐

나의 제자인 지훈은 시인이자 수필가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오랫동안 왕래가 소원하던 중 자신이 지은 글을 한 편 가져와 나에게 발문(跋文)을 청하기에 읽어 보니, 내용과 뜻에서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 나 또한 느낀 바가 있었으니,

[ ]

아마도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나의 생각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지금 나는 늙어 향리로 돌아와 한가롭게 살고 있지만, 제자의 깊은 뜻이 담긴 글을 틈틈이 대하며 소일거리로 삼겠노라.

갑신년 늦가을에 도산 노인 쓰다.

- ① 세상살이에 변화와 굴곡(屈曲)이 많음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자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② 인간의 이욕(利慾)에 매여 살면서도 그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혀 적었으니, 이로부터 괴로움을 벗어날 교훈을 얻게 된다.
  - ③ 훌륭하다. 내가 젊었을 적에 그런 멋진 생각을 했으면 이리 곤궁(困窮)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④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제시하며 모범적인 삶을 쫓아가되, 즐김과 따져 봄의 균형 맞추기를 권하고 있어 삶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 ⑤ 사람들은 기이하거나 허황한 것을 좋아하나 지훈은 평범함 속에서도 지조(志操)를 잃지 않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후세들도 그 성정(性情)을 따르기를 바란다.
39. (가)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영탄적인 어조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구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이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옛사람의 작품을 인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스러운 말투와 한자어의 사용으로 고풍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40. (가)의 내용으로 볼 때, [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 ②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 ③ 마음의 흐름대로 따르는 것
- ④ 세상 이치를 알아 가는 것
- ⑤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것

41. (나)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연하(煙霞)’와 ‘풍월(風月)’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자연물로 보이고, [D]의 ‘청산(靑山)’과 ‘유수(流水)’는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로 보여.
- ② [B]의 ‘허다영재(許多英才)’는 [A]의 ‘허름이나 업고자’ 하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비판할 것 같아.
- ③ [C]의 ‘낙사(樂事) | 무궁(無窮)’에는 자족적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는 [E]에 나타나듯이 ‘늙는 줄’도 잊고 학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봐.
- ④ [D]에서 말하는 ‘그치지 마라’의 내용은 [C]의 ‘만권생애(萬卷生涯)’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
- ⑤ [E]의 ‘우부(愚夫)도 알아 흐거니’는 [B]의 중장처럼 누구나 ‘어진 인성(人性)’을 지니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기 수양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42.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순 -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둥에 일 업슨 닉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그리라.  
- 성혼 -
- ③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흐노라.  
- 윤선도, 「만흥 1」 -
- ④ 흥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넛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처 이서 지락(至樂)을 모를 것가.

- 정극인, 「상춘곡」 -

⑤

꺾을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뒀거든 병(瓶)이라 담겨시라.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논  
가.

- 박인로, 「누항사」 -

43.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이질적인 것은? [1점]

-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이리저리해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 ② 갈팡질팡하는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좌지우지한단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06학년도 6월 평가원 55~60번]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다정가(多情歌)」 -

(나)

귀뚜리 저 귀뚜리 어어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윈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A]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  
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氷玉) 같은 심정을 그리려 하  
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

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늙은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고, 다시 붓을 바꾸

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이 상강(湘江)

의 냇\*을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  
이다. [A]

종이 위에 그린 풀잎에서 어떻게 향기를 맡으며,  
먹으로 그린 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 이것이 심안(心眼)이다. 문심(文心)과 문정(文  
情)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아(伯牙)가 있  
고, 또 종자기(鍾子期)\*\*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뜻을 알면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자(作者)를 저버  
리지 않는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뜻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  
代)의 공민(共悶)이요, 사회(社會)의 공분(共憤)이  
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  
(身邊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  
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조리를 여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  
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을  
통하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  
적인 자신이 아니요 응시(凝視)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  
된 사색이라야 정(情)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  
이다.

의지가 강렬한 남아는 과묵한 속에 정열이 넘치  
고, 사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  
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문  
장이 장황하고 산만할 수가 없다. 사진의부진(辭盡  
意不盡)\*\*\*의 여운이 여기 있는 것이다.

깊은 못 위에 연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바닥에 찬물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 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써 비로소 음미(吟味)에 음미를 거  
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멀수록 맑은 향  
기가 은은히 퍼지며, 한 송이 뚜렷한 연꽃이 다시  
우아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글이 쓰고 싶고, 이런 글이 읽고 싶다.

- 윤오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

\*상강의 냇: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녇.

\*\*백아와 종자기: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고사의 주인공들.

\*\*\*사진의부진: 말은 다 하였으나 말하고 싶은 뜻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음.

5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56. (가)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이화',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② '이화', '월백', '은한'은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 ③ '삼경'은 시간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한'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 ④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⑤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57. (가)의 '자규'와 (나)의 '귀뚜리', 그 어느 것의 시적 기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 ② 소리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 ④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 ⑤ 작품 내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다.

58. ㉠과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59. (다)를 읽고 글의 취지에 근거하여 모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썼을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② 각자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이 글로써 드러내 고자 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 해 본다.
- ③ 널리 알려진 작품을 쓴 소설가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알아본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 하는지 알아본다.
- ⑤ 문헌 조사를 통해, 옛 문인들이 즐겨 선택한 소재와 오늘날의 작가가 선호하는 소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60. 다음은 <주상탄금도(舟上彈琴圖)>라는 그림이다.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1점]



- ① 대나무 가지들이 배를 향해 뺨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군.
- ② 강과 산과 하늘의 경계를 두지 않은 독특한 필법(筆法)을 구사하고 있군.
- ③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 탈속적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인물 뒤로, 가는 선의 폭포와 새 한 마리를 그려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군.
- ⑤ 배와 인물을 중심에 두고 대나무와 폭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군.

[2006학년도 수능 24~30번]

(가)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나그네는 돌아가고픈 심정이 간절해지네  
긴긴 밤 근심에 겨워 오래 앉았노라니  
홀연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바람에 실려 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듣지를 못하였건만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霜天月照夜河明  
客子思歸別有情  
厭坐長宵愁欲死  
忽聞隣女擣衣聲  
聲來斷續因風至  
夜久星低無暫止  
自從別國不相聞  
今在他鄉聽相似

- 양태사, 「야청도의성(夜聽擣衣聲)」 -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글란 생각 마오 맏힌 일이 있어이다  
임을 뵈셔 있어 임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춘한(春寒) 고열(苦熱)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秋日) 동천(冬天)은 누라서 뵈셨는고

[A]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다)

그날 황혼 천하에 공지(空地) 없음을 한탄하며 누  
집 이층에서 저물어 가는 도회를 내려다보고 있었  
다. 그때 실로 덕수궁 연못 같은, 날만 따뜻해지면

제 출몰에 해소될 영성한 공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참 ㉠홀륭한 공지를 하나 발견하였다.

○○보험회사 신축 옹지라고 대서특서한 높다란 판  
장(板牆)으로 둘러막은 목산(目算)\* 범 천 평 이상  
의 ㉡명실상부의 공지가 아닌가.

잡초가 우거졌다가 우거진 채 말라서 일면이 세피  
아 빛으로 덮인 실로 ㉢황량한 공지인 것이다. 입  
추의 여지가 가히 없는 이 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인외경(人外境)의 감을 풍기는 적지 않은 공지가  
있다는 것은 기적 아닐 수 없다.

인마(人馬)의 발자취가 끊인 지-아니 그건 또 처  
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오랜 이 공지에는 강  
아지가 서너 마리 모여 석양의 그림자를 끌고 희롱  
한다. 정말 공지-참말이지 이 세상에는 인제는 공  
지라고는 없다. 아스팔트를 깬 뻥질한 길도 공지가  
아니다. 질편한 논밭, 임야, 석산, 다 아무개의 소  
유답이요, 아무개 소유의 산갯\*\*이요, 아무개 소유  
의 광산인 것이다. 생각하면 들에 나는 풀 한 포기  
가 공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치대로 하자면  
우리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일 보의 반 보를 어  
찌 옮겨 놓으리오. 오늘 우리가 제법 교외로 산보  
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세상 인심이 좋아서 모  
두들 묵허(默許)를 해 주니까 향유할 수 있는 사치  
다. 하나도 공지가 없는 이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  
던 차에 이런 ㉣공지다운 공지를 발견하고 저기 가  
서 두 다리 쪽 뺏고 누워서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보험  
회사가 이윤을 기다리고 있는 건조물인 것을 깨달  
았다. 다만 이 건조물은 콘크리트로 여러 층을 쌓  
아 올린 것과 달라 잡초가 우거진 형태를 하고 있  
을 뿐인 것이다.

[B] 붓이 왔다. 가난한 방안에 왜꼬아리 분(盆)  
하나가 철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이 튼다. 그  
닷굽 한 되도 안 되는 흙 위에다가 늘 잉크  
병을 올려놓고 하다가 싹트는 것을 보고 잉  
크병을 치우고 겨우내 그대로 두었던 낙엽을  
거두고 맑은 물을 한 주발 주었다.

그리고 천하에 공지라곤 요 분 안에 놓인 땅 한 군  
데밖에는 없다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를 뺏  
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기에는 이 ㉤동글납작한 공  
지는 너무 좁다.

-이상, 「조춘점묘(早春點描)」 -

\*목산 : 눈으로 어림셈함.

\*\*산갯 : 산갯. 산림의 의미.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연물에 빗대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다.

25. (가)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과 ‘은하수’는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이다.
- ② ‘다듬이 소리’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바람’은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④ ‘별이 낮도록’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 준다.
- ⑤ ‘서로 비슷하네’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중첩됨을 드러낸다.

26. (나)를 상소문이라고 가정할 때, (나)의 ㉠~㉣ 중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1점]

<보 기>

상소문은 여러 경우에 쓰는데, 그 중에는 개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전말을 밝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거나 결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탓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 ② [A], [B] 모두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 [B]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 ④ [A]에는 공간적인 이동이, [B]에는 시간적인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⑤ [A]는 반어적인 표현을,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다)의 화자의 심리를 미루어 짐작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현대인이 신경증을 앓는 까닭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로 그 문명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의 창고에는 오히려 빈 구석만 더욱 늘

어 간다. 그리고 그 빈 구석을 메우고 타오르는 것은 율화의 불길이다.

- ① 도시적 삶이 주는 화려함에 이끌려 해매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전통적 가치가 배척되는 근대 사회를 보고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식민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상실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
- ④ 도시 문명에서 도피하여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쌓여 있다.

29. (다)의 ㉠~㉣ 중, 같은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다)의 ‘풍기는’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키로 까불러서 검불을 풍기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 ② 이국의 정취가 풍기는 아름다운 거리를 한없이 걸어갔다.
- ③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붉은 해당화가 마음을 설레게 했다.
- ④ 총소리가 풀숲에 숨어 있던 새들을 풍겼다.
- ⑤ 시골 길로 버스가 지나가자 먼지가 풍겼다.

**[2007학년도 6월 평가원 37~42번]**

(가)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玉人金釵)\* 비겼으니  
 [㉠]이삼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잡아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빙자옥질(氷姿玉質)이어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억하니  
 아마도 아치 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 금차: 미인의 금비녀.  
 \* 척촉: 철쭉.  
 \* 백설 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

(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이는 산람(山嵐)\*이라  
 천암(千巖) 만학(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사양(斜陽)과 섞어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구나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엉킨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된서리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쳐진고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물커늘  
 조물이 헌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  
 저(眼底)에 벌였어라  
 ㉤건곤도 풍성할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순, 「면양정가」 -

- \* 산람: 산 속에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운.
- \* 경궁요대: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
- \* 옥해 은산: 눈 덮인 들판과 산.

(다) 아아! 덕보(德保)\*는 만사에 통달하고 명민하며, 겸손하고 고아하며, 식견이 심원하고 아는 것이 정밀하였다. 특히, 율력(律曆)에 정통하여 그가 만든 혼천의(渾天儀) 등 여러 기구들은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연구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제작한 것들이다. 애초 서양인은 땅이 둥글다는 것만 말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덕보는 일찍이 지구가 한 번 돌면 하루가 된다고 논했는데 그 이론이 미묘하고 심오하였다. 이에 관한 책을 미처 쓰지는 못했지만, 만년에 이르러 지구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더욱 자신하였다.

덕보를 흠모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일찍부터 과거를 단념한 채 명리(名利)를 생각지 않고 조용히 집에 들어앉아 좋은 향을 피우거나 거문고를 타며 지내는 것을 보고는 ‘덕보가 담박하게 자중 자애하면서 세속을 벗어나 마음을 닦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백사(百事)를 두루 잘 다스리고, 문란하고 그릇된 일을 척결하며, 나라의 재정을 맡거나 외국에 사신으로 갈 만하며, 군대를 통솔하여 나라를 방어하는 데 뛰어난 책략을 지녔다는 것을 통 알지 못했다. 하지만 덕보는 자신의 재주가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한두 고을의 수령을 지낼 때에도 그저 관아의 장부

를 잘 정리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며, 아전들을 공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따르게 함이 고작이었다.

덕보는 서장관(書狀官)인 숙부를 수행하여 북경에 갔을 때, 유리창\*에서 육비, 엄성, 반정균을 만났다. 이 세 사람은 모두 고향이 전당(錢塘)으로 문장과 예술에 능한 선비들이었고, 사귀는 이들도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덕보를 큰선비로 떠받들며 그에게 심복(心服)하였다. 덕보는 그들과 수만 글자의 필담을 나눴는데, 그 내용은 경전의 취지, 사람에게 천명이 부여된 이치, 고금의 인물들이 살아간 도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웅대하고 걸출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번 헤어지고 나면 천고에 다시 만나지 못할 테지요. 지하에서 만날 그날까지 부끄러운 일이 나 없도록 합시다.”

- 박지원, 「홍덕보 묘지명(洪德保墓誌銘)」 -

- \* 덕보: 홍대용(洪大容)의 자(字).
- \* 유리창: 중국 북경의 거리 이름.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③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사물에 의탁하여 삶에서 얻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 있다.

38. (가)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발웅’은 매화를 완상하는 주체이다.
- ② ‘황혼월’은 매화의 비유적 표현이다.
- ③ ‘아치 고절’은 매화에 부여된 관념적 속성이다.
- ④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 ⑤ ‘눈’은 매화의 생명력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39. 옛 노래를 알리기 위해 (가)와 (나)를 소재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한다.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조출한 술상을, (나)는 가마와 피리를 소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 ② (가)는 구슬프게, (나)는 은은하게 느껴지는 배경 음악을 사용해야겠어요.

- ③ (가)는 늦겨울이나 초봄을, (나)는 사계절을 계절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④ (가)는 밤을 위주로, (나)는 낮부터 밤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 ⑤ (가)는 한옥의 뜰을, (나)는 주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야겠어요.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② ㉡: 화자의 한가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풍경의 변화를 통해 적막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 시·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 ⑤ ㉣: 화자의 감회가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41. (가)의 ㉠와 (다)의 ㉡의 거문고 연주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와 ㉡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자신을 위해, ㉡는 타인을 위해 연주하고 있다.
- ④ ㉠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는 마음을 수양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⑤ ㉠는 주변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는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4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덕보’가 취한 평소의 생활 자세를 그리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비교하여 ‘덕보’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감탄적인 어조로써 ‘덕보’에 대한 감회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덕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바뀐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예를 들어서 ‘덕보’의 인물됨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07학년도 수능 51~56번]

(가)

이화우(梨花雨)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의 시조 -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흠어지고  
공산 축루(空山觸露)\*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迴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임의 집 창 밖에 외나무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 소영(月中疎影)\*이 임의 옷에 비치거든

㉡가없는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까

- 조위, 「만분가(萬憤歌)」 -

\*공산 축루: 사람 없는 산중의 해골.

\*만장송: 만 길이나 되는 소나무.

\*침변: 베갯머리.

\*월중 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다)

우리 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目不識丁)\*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 애, 우리 서당 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例)의 서당 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도(陶), 당국 당(唐)’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 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疑義)를 삽(插)한즉\*, 늙은 영감이 분연(憤然)히,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斷然)히 서당 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둘러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이냐.

사랑에 놓인 또 하나의 질화로는 이와는 좀 다른 풍경을 보였다. 머슴, 소배(少輩)들이 모인 곳이면, 신 삼기, 동우리 만들기에 질화로를 에워싸 한창 분주하지마는, 팔씨름이라도 벌어드는 때에는 쌍방이 엮디어 서로 버티는 서슬에 화로를 발로 차 온

방 안에 재를 쏟아 놓기가 일쑤요, 노인들이 모인 곳이면, 고담 책\* 보기, 시절 이야기, 동네 젊은 애들 버릇없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 질화로를 둘러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노인들의, 입김이 적어서 꺼지기 쉬운 장죽은 연해 화로의 불돌 밑을 번갈아 찾아갔었다. ㉠그리하여 지나간 겨울밤은 어느덧 밝을 넋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우리 집은 어떠했는가? 나도 5, 6세 때에는 서당 아이였고, 따라서 질화로 위에는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찌개 그릇이 있었고, 사랑에서는 밤마다 아버지의 담뱃대 터시는 소리와 고서(古書)를 읽으시는 소리가 화로를 둘러 끊임없이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그 소리는 사랑에서 그쳤고, 따라서 바깥 화로는 필요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안방의 화로 곁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대학(大學)』을 구수(口授)\*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내가 열두 살 되던 해에 그 질화로 옆을 길이 떠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서당 아이는 완전한 고아가 되어, 신식 글을 배우러 옛 마을을 떠나 동서로 표박(漂泊)\*하게 되었고, 화로는 또다시 찾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질화로의 찌개 그릇과 또 하나의 질화로에 깊이 묻히던 장죽, 노변(爐邊)의 추억은 20년 전이 바로 어제와 같다.

- 양주동, 「질화로」 -

\*목불식정: 글자를 한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의의를 삼한즉: 의문을 제기하니.

\*고담 책: 옛날이야기 책.

\*구수: 학문이나 지식 따위를 말로 전하거나 가르쳐 줌.

\*표박: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5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③ 작품의 바탕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 ④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5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 강조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3. (가)의 ‘꿈’과 (다)의 ‘추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추억’에는 모두 교훈적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꿈’의 내용이 현실적이라면, ‘추억’의 내용은 환상적이다.
- ③ ‘꿈’과 ‘추억’ 모두 화자의 현실적 고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꿈’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면, ‘추억’은 다양한 대상과 연관된다.
- ⑤ ‘꿈’과 ‘추억’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4.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황상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이다.
- ② ‘공산 축루’, ‘외나무’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보여 준다.
- ③ ‘만장송’, ‘금강산 학’은 입을 향한 화자의 번치 않는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④ ‘바람비 뿌린 소리’, ‘두어 소리’는 입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 ⑤ ‘침변에 시드는’은 입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55.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과 ‘눈물’의 관계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여 형상화했군.
- ② ㉡: 화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군.
- ③ ㉢: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 ④ ㉠: 겨울밤이 무척이나 길고 무료했다는 뜻이군.
- ⑤ ㉢: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56. (다)의 ‘질화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로 설정되어 있다.
- ④ 정감이 넘치는 풍경을 연상시키고 있다.

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2008학년도 9월 평가원 20~24번]

(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  
 고,  
 봉두(峯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펴 놓은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할사.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울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나)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여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迢迢水雲鄉  
 平湖春暖烟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簑青笠共行藏  
 一聲欸乃舟中趣 那羨人間有玉堂  
 -설장수, 「어옹(漁翁)」-

\*옥당: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청의 별칭.

(다)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이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훼(花卉)에 관심이 없었다. 동쪽 정원에  
 단지 복숭아나무 한 그루와 잡목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모두 심지 않았는데도 싹이 트고, 물을 주  
 지 않았는데도 자랐으며, 호미질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된 것들이다. 바야흐로 춘삼월에 복숭아  
 꽃이 막 피어났는데, 꽃잎이 곱고 꽃부리가 연약하  
 며 꽃술이 향기로웠다. 금으로 둥글리고 옥으로 깎  
 은 듯, 분칠을 열게 하고 연지를 질게 찍은 듯하였  
 다. 잡목은 그 곁에 서 있는데, 가지나 잎도 볼 만  
 한 것이 없고 꽃도 피지 않았다. 그저 이름도 모르  
 는 나무일 뿐이기에 잡목이라고 불렀다.  
 하루는 종 녀석이 화원에 가서 한참 바라보더니  
 복숭아나무로 다가가 어루만지면서 주위를 서성였

다. 다시 물을 주고 흙을 복돋아 주고서 떠났는데,  
 잡목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했다.  
 “지금 복숭아나무가 잎이 막 싹을 틔우고 꽃이 또  
 봉오리를 맺으니, 그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  
 스러운 데다가 장차 이익까지 주게 됩니다. 저 잡  
 목은 꽃도 잎도 볼 것이 없고, 과일도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그 뿌리가 굳세고 가지가 굵습니다. 뿌  
 리가 길게 뻗으면 지맥을 막아 복숭아나무가 번식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크면 햇볕을 가로막고 방  
 해하여 양기(陽氣)를 소모하게 되니 복숭아나무가  
 번창하여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베임을 당하지 않  
 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지켜 줄 필요가 있겠습  
 니까?”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너는 큰 도  
 리를 듣지 못했느냐? 하늘의 도(道)는 만물에 두루  
 은혜를 베풀어서 비와 이슬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내리고, 군자는 남을 두루 사랑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인(仁)의 경지를 이룬단다. 그러므로 태산의  
 언덕에 ㉡소나무, 계수나무가 가축나무, 상수리나무  
 와 함께 자라고, 달인(達人)의 문하에 어진 이와 어  
 질지 못한 이가 같이 있게 되지. 복숭아나무와 잡  
 목은 예쁘다는 점과 못생겼다는 점, 특이하다는 점  
 과 평범하다는 점에서 정말로 차이가 있지. 하지만  
 똑같이 천지의 기를 받아 태어났고, 태어나서 또  
 마침 나의 동산에 심어져 있구나. 사람이 하나는  
 보호하고 하나는 버린다면, 잡목으로 태어난 존재  
 가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나는 내 화원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모두 그 사이에  
 행(幸)과 불행(不幸)이 있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얼른 가서 가꾸어라.”  
 -남공철, 「동원화수기(東園花樹記)」-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②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③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에 의지해 잊고자  
 한다.  
 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② (나)는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

이고 있다.

③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가), (나)는 모두 정경 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⑤ (가)는 (나)에 비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22. (나)의 화자가 <보기>의 ㉠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강호(江湖)에서 살아가는 어부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실제 어부, ㉠이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隱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②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 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③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로 표상하고 있군.

④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겠지.

⑤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뚫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군.

23. (다)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나'는 잡목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②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③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④ '종'은 복숭아나무의 심미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⑤ '나'와 '종'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24.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②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③ ㉠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는 고독을 느끼게 하는 사물이다.

④ ㉠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는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⑤ ㉠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2009년 6월 평가원 46~50번]

(가)

鷺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화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화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정약용, 「고시(古詩)」-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려면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발도 쉽사리 갈면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사

㉢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박인로, 「누항사」-

\* 세정: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시다. 땔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발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다니고 밥 짓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더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대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지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땅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땔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㉞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공감할 수 없는 것  
㉡: 서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② ㉠: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서술자가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 ③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서술자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인식하는 계기
- ④ ㉠: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원인  
㉡: 서술자가 체념적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
- ⑤ ㉠: 화자의 외로움을 확대시키는 원인  
㉡: 서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0.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 데 지쳤어. 지난 여름에 한 번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산이 생각나는군. 이곳을 떠나 능수산의 울창한 숲과 강물을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① 능수산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까요? 그 곳은 그곳대로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② 선불리 그곳으로 이주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③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시련의 시기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이 머무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④ 현실을 벗어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는 당신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지향합니다. 당신이 능수산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분명 또 다른 이상향을 꿈꿀 것입니다.

[2010학년도 6월 평가원 31~35번]

(가)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돌부리를 부여잡기도 하며 5, 6리쯤 나아가 **영랑재**에 올랐다.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을 굽어보았다.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이름 붙여 말하면 이러하다.

사람 모습을 한 것, 새 모습을 한 것, 짐승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사람 모습을 한 것은 앉은 듯 일어서 듯, ㉠우러러보는 듯 굽어보는 듯하여, 마치 장군이 군진(軍陣)을 정돈하자 백만 군졸이 창을 옆으로 비끼고 칼을 휘두르며 다투어 적진으로 내닫는 듯도 하고, 늙은 스님이 공(空)을 강론하자 수천의 중들이 가사를 어지러이 걸치고 급하게 참선에서 돌아오는 듯도 하다. 새 모습을 한 것은 나는 듯 쫓는 듯, 새끼 부르는 듯 꼬리 뒤채는 듯하여, 마치 ㉡기러기 무리가 날개를 가지런히 하여 행렬을 이루어 가을 하늘에 점을 찍듯 열을 지는 듯도 하고, 짝 잃은 난(鸞)새가 외로운 그림자를 떨어뜨리면서 머뭇거리다가 거울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듯도 하다. 짐승 모습을 한 것은 웅크린 듯 엎드린 듯, 달리는 듯 누운 듯하여, ㉢양들이 흠어져 풀을 뜯다가 해가 저물어 내려오는 듯도 하고, 사슴들이 험한 곳을 달리다가 발을 헛디더 놀라 추락하는 듯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망고대와 만폭동에서 본 것은 모두 아이들의 장난같이 여겨진다.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4, 5십 리를 에두르고 비스듬히 가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는 모두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서로 뒤엎혀 짙고 열은 푸른빛을 띠었으며, 그 키가 서너 장(丈)쯤 되어 보였다.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니 마치 @풀로 엮은 다리 위를 걷는 듯했다. 승려 지능이 발을 헛디더 4, 5십 보를 굴렀지만 떨어지지 않는

다. 또 4, 5백 보를 걸어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하여,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이날 천지가 맑고 개어 사방으로 작은 구름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승려 성정에게 말하였다.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源流)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 요령(要領)\*이 없을 수 없겠지요.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성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두루 보여 주었다.

-홍인우, 관동록 -

\*요령: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나) 쇼향노 대향노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소 **진혈터** 고터 올라 안존마리, 녀산(廬山)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이 헌스토 헌스힐샤.

놀거든 쉼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춘는 듯 북극(北極)을 괴왔는 듯.

눅흠시키고 망고디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 겁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ㄱㅌ니 썩 잇는가.

**기심터** 고터 올라 등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녀녁히 혀여ㅎ니,

봉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문돌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홀샤.

[B]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 태산이 어늬야 놓뉘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텃하 엇씨헝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롤 어이헝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헝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정철, 관동별곡 -

(다)  
 금강 일만 이천 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天上人) 되었어라  
 아마도 서부진 화부득\*은 금강인가 하노라

-안민영-

\*서부진 화부득(書不盡畫不得) : 글로 다 써 낼 수 없고 그림으로 다 그려 낼 수 없음.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여행 도중의 감상과 글로 표현할 때의 감상을 구별하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물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단정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주관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사물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묘사하고 있다.

32. ㉠~㉣ 중, 표현하는 대상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 ④ ㉣                      ⑤ ㉤

33. (가)~(다)를 바탕으로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였다. (가)~(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영랑재'에서 산봉우리와 골짜기를 굽어보며 그것들이 이루는 다양한 형상을 확인해 본다.

- ②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오르는 길에 해송과 측백나무의 모양새를 확인해 본다.
- ③ '진혈터'에서 '녀산' 쪽을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경치를 즐겨 본다.
- ④ '기심터'에서 '등향성' 쪽으로 조망하며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형상이 빚어내는 다양한 기운을 느껴 본다.
- ⑤ '혈성루'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며 신선이 되는 느낌을 가져 본다.

34. [A],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를 사물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② [B] :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A]와 [B] :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A]와 [B] :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A]와 [B] :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35. (다)를 <보기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보 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기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 기 2>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눈 | 아 | 니 | 면 || 옥 | 이 | 로 | 다 ||

|| 월 | 성 | 루 | || || 올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 되 | 었 | 어 | 라 ||

|| 아 | 마 | 도 | || || 서 | 부 | 진 | 화 | 부 | 득 | 은 || 금 | 강 | 인 | 가 || 하 | 노 | 라 | ||

\* || || : 한 음보의 길이

본 문서의 독창적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편집저작권은 편집자(『Joshua』)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편집을 금합니다.

[소설 - 이론 정리]

